

**<글말교실 소감문>**

대학생이 되어 대학생에 걸맞은 글을 쓰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글을 쓰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고, 어렵게만 느껴졌습니다. 고민을 안고 박진 교수님의 글쓰기 수업을 수강했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박진 교수님께서는 글과 친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강의를 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라 저의 글쓰기 실력이 향상되었고, 나름대로 만족할 만한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선부른 자만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만족스럽지 못함을 느꼈습니다. 이에 글을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해 고민하던 중, 교수님께서 글말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안내해주셨습니다. 글말교실을 처음 접한 순간이었습니다. 작성한 글을 피드백 받기 위해 교양 대학에 있는 글말교실을 찾아 신청했습니다. 박진 교수님께 표절률, 글의 전개와 관련한 피드백을 받았고, 피드백을 바탕으로 글을 수정했습니다. 글말교실을 도움 덕분에 대학생에 걸맞은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었고, 이에 처음으로 글쓰기와 관련하여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 글을 보며 스스로 아쉬움을 느꼈는데, 글말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글쓰기 능력을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어 좋았습니다. 특히 교수님께서 글을 직접 보시고, 맞춤형으로 빠르게 피드백해주시는 것이 좋았습니다.

사실 참으로 부끄럽게도 박진 교수님의 안내가 있기 전까지는 학생들의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한 글말교실이 시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 못했습니다. 만약 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몰랐더라면 참으로 억울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학생이 이 유익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글말교실은 학생들에게 노출되는 빈도가 너무 낮아 학생들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ON 국민이나 E-캠퍼스에 노출되는 빈도를 늘릴 필요가 있으며, ON 국민이나 교양 대학 인스타 홍보로 부족한 부분은 교내 단과대나 학과 학생회를 연결 다리로 삼아 학생들에게 글말교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ON 국민 내에서 글말교실로 연결되는 링크가 없어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은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력개발지원단이 ON 국민 페이지 상단에 접근하기 쉽게 노출된 것처럼 교양 대학 또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말교실 프로그램을 신청할 때, 신청 게시판이 따로 마련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신청 게시판이 따로 있지 않아 제대로 신청이 된 것인지 알 수 없어 난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착오를 줄이기 위해 신청 게시판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그냥 지나쳐 가기엔 너무나도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많은 학생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알려질 필요가 있습니다. 글말교실을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 또한 이를 얻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며, 동기, 선후배에게 프로그램을 추천하여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글말교실 또한 포기하지 않고 학생들을 위해 끝까지 힘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